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 1위...이낙연 13%·윤석열 10%

민주35%·국민의힘 21%·정의6%

4월 재보선 與·野 지지 41%로 동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가 27%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1월 1주차보다 3%포인트 상승한 27%로 조사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한 13%를 나타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6%포인트 내린 10%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45%,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30%로 이 지사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지난 1월 1주차 조사(이 지사 38%, 이 대표 33%) 때 5%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15%포인트였다.

이 대표 지지도 하락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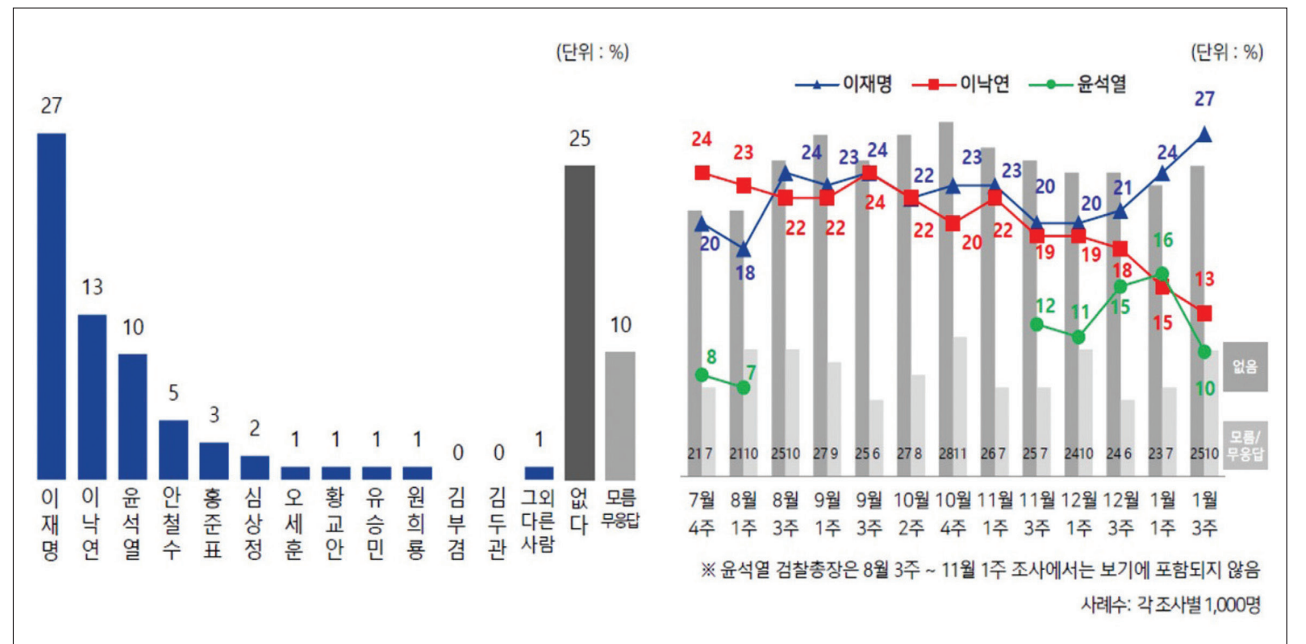
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인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39%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

이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 무소속 홍준표 의원 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34%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홍 의원 7%, 안 대표 6%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1%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고, 정의당은 6%를 기록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과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 모두 41%로 같게 나타났다.



다만 실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44%), 부산·울산·경남(45%)의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뉴시스

김희재 의원, 검진 의무화 개정안 결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의료기관서 검사 통해 학대 여부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 남여수)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 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 조사를 의뢰 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료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원활한 수사와 함께 조기 학대피해 확인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들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으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신속한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우상호 "박영선 출마 기뻐...민주당 대표선수는 바로 나"

"박영선·우상호 정도면 시대정신 반영에 충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서울시장 출마가 가시화된 데 대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선에 참여한 후보와 일정이 확정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섯 번째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흥행 할 수 있도록 후보들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훌륭하지만 박영선, 우상호 정도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고고히 흐르는 정신, 민주와 진보 확장·정확이라는 민주당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선수가 우상호라 자부한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대표선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겨냥해 "최근에 야당 후보와 야당 행보를 보

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때리기와 박원순 때리기"라며 "야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전 시장만 때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초딩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된 사람이 문재인, 박원순 욕만 하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선택할리 없다"며 "준비 안 된 사람이 구정치적 발상으로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앞서 공약 발표에서는 "수년 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반드시 현실로 이

루겠다"며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으로 명명한 공약은 ▲서울역~구로 ▲구로~은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1호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골자다. 2호선,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목표다.

우 의원은 "과거 여러 선거에서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공약이 나왔으나, 지키지 못했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문재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상호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승호기자

與, 연일 금융권에 코로나 고통 분담 압박... "상생 노력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이자면충법을 제안한 데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침이 올해 연말까

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하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가급적 연말까지는 연장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수혜 대상을 확인해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코로나 19 국민에도 금융권은 실적을 올렸

다"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 문제를 지적한 뒤 "은행권도 우리 사회의 상생, 협력, 연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총장은 "2020년 9월 30일로 예정된 기한이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가 추가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